



책의 날 기념 출판문화발전 유공자 시상식 김종호 경남인쇄사 대표 인쇄부문 유공자상 수상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고영수)는 지난 10월 20일 오전 10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제28회 책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책의 날'은 고려대장경 완성일(10월11일)을 기념해 1987년 출판계에서 제정한 날로 정부는 매해 '책의 날'에 출판 지식산업 발전 및 건전한 출판문화 조성에 기여해 온 출판인들을 발굴, 표창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서 김종호 경남인쇄사 대표가 인쇄부문 유공자상을 수상했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이날 행사에는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비롯해 이정일, 백석기 출협 전 회장, 윤형두 출협 명예회장, 이기웅 국제문화도시 교류협회 이사장, 이재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을 비롯해 조정석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 남궁영훈 한국잡지협회 회장, 이상훈 한국제책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출판인 및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국민의례, 책의 날 제정 경위 소개, 책의 날을 만드는 글 낭독, 고영수 출협 회장 기념사, 김종 문화부 차관 축사, 시상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고영수 회장은 기념사에서 "최근 미디어 환경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등을 운운하며 종이책 시장의 위기를 말하지만 21세기 창조 경제를 구현하는 인프라는 책을 원소스로 하는 텍스트에서 출발한다"라며 "출판산업이야말로 국민의 안녕과 국가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주목하고 육성해야 할 벤처산업"이라고 강조했다.

김종 차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문화융성을 국정지표로 삼고 있는데, 이 문화융성의 핵심은 정신문화의 원천인 책이다. 하지만 최근 출판계는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데, 구조적 불황을 이겨내고 새로운 출판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출판인들의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김 차관은 또 "출판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디딤돌이 되도록 정부도 다양한 진흥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표 대표 은관문화훈장·진육산 대표 대통령 표창

김현표 미진사 대표가 미술 교육과 디자인 도서 출간으로 미술 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은관문화훈장을, 진육산 백산출판사 대표가 학술도서의 저변 확대와 인재교육 및 양성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윤광원 (주)미라엔 전무 이사 등 16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인쇄유공자상 김종호 경남인쇄사 대표 수상

관련업체 출판유공자상 표창에서 인쇄부문 김종호 경남인쇄사 대표, 제책부문 안영일 신안제책사 대표, 서적상부문 이동선 계통문고 대표가 각각 수상했다.

인쇄부문 유공자상을 수상한 김종호 대표는 1976년 인쇄업계에 몸을 담은 후 농수산물 포장재의 다양화와 고급화를 위한 인쇄 기술 개발에 진력해 왔다. 포장 박스 인쇄의 품질고급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하고 있으며, 지난 2010년 인쇄문화의 날에 국무총리 표창을 받기도 했다.☞